

등록번호 서울다-10691
 등록연월일 포덕 154(2013)년 8월 7일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9층
 전화:02-735-3296 / 02-732-3956
 FAX:02-725-7718
 http://www.chondogyo.or.kr
 구독료:1부 1,300원, 연간 30,000원

천도교신문



제187호(통권582호) 포덕 163(2022)년 1월 20일(목요일)
 발행인: 송범두 / 편집인 겸 주간: 박인준 / 인쇄인: 윤병업 / 발행소: 천도교중앙총부

“춘암상사의 철두철미한 신앙심을 본받아 거듭나자!”

- 제114주년 도일기념식 봉행



제114주년 도일기념식이 중앙대교당과 전국의 교구에서 개최되었다. 도일기념일은 춘암상사께서 포덕 49년(1908) 1월 18일, 의암성사로부터 대도주(大道主)의 도통을 선수 받아 천도교 제4세 대도주가 되신 날이다.

중앙대교당 기념식은 전명운 교화관장의 집례로 박정재 여성회 부회장의 청수봉전, 박차귀 여성회장의 경전봉독(신앙통일과 규모일치), 천덕송 합창(기념송, 도일기념가), 송범두 교령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범두 교령은 기념사를 통해 “교단은 장기간에 걸친 신구파 분규를 마감하고 마침내 합동하게 되자 춘암상사는 ‘교회에 이제 합동이 된다니 내가 영계(靈界)에서 스승님을 뵈기가 땀땀하게 되었다’는 유언을 남기고 합동대회를 하루 앞둔 4월 3일에 향년 86세로 환원하셨다.”고 회고하고, “춘암상사는 환원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염주를 놓지

않고 주문 외우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송 교령은 “우리 교단은 금년 3월에 교령을 새로 선출하는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침체된 교단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교단 중흥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어 동귀일체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전국의 각 교구에서는 도일기념식을 봉행하였고, 서울 인근 교구의 교인은 중앙대교당에서 합동으로 기념식을 봉행하였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예방백신 접종완료자만 기념식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고위험군(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현저히 낮은 교인은 참여를 금지하였으며, 유튜브 천도교방송을 통하여 기념행사 영상을 송출하였다. (관련기사 2면)

<춘암상사 어록>

-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에 죽고 참에 살리라』
- 『제 할일을 다 하고 제 잠을 다 자고
도는 언제 닦겠는가』
- 『벼어리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 『유형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무형한 한울을 섬기랴』

포덕 163년 동계수련 계획

1.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총부 지침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안내
 - 숙박금지, 음식섭취제공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 행위 금지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교구/수도원의 개인/단체수련을 중단, 재가기도 방식으로 함.
2. 동계수련 재가방식(1주일 특별기도)
 - 1) 제목: 포덕 163년 동계수련
 - 2)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무병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수련하는 생활, 실천하는 신앙으로 침체된 신앙심을 회복하고 교단에 새로운 도의 기운을 불러 일으키고자 함.
 - 3) 기간: 49일. 163년 1월 1일(토) ~ 2월 18일(금)

■ 개인수련 기간: 163년 1월 1일(토) ~ 2월 18일(금) 중 7일 또는 21일 등(개인이 정함) - 방법 재가기도(개인이 정함)

■ 심고문(※ 예시문. 개인 실정에 따라 정하여 사용할 것.)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저희들은 ‘모시고 새롭게’를 기치로 신앙회복과 포덕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괴질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계수련(특별기도)을 봉행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인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어려운 시간을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울님과 대신사님의 특별한 감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아 코로나19 괴질이 해소되어 하루빨리 이 땅 위에 모든 이의 건강함과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훌륭하게 성취되어 행복한 한울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심고합니다.

| 보신 새종계 | 교단 주요 동정 |
|------------------------------|----------|
| 1월 1일 ~ 2월 18일 | |
| - 포덕 163년동계수련기간 (49일) / 재가기도 | |
| ●1월 17일 | |
| - 제40주기 수의당 주옥경 종법사 추도식 | |
| - 11시, 우이동 묘소 앞 | |
| ●1월 18일 | |
| - 제114주년 도일기념식 | |
| - 11시, 대교당 | |
| ●1월 25일 | |
| - 중무위원회의 | |
| - 14시, 907호 | |

도일기념사



국내·외의 동덕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춘암상사께서 제4세 대도주가 되신지 114주년을 맞이하는 도일기념일입니다. 이날을 맞아 우리 교인들은 춘암상사께서 보여주신 성지우성(誠之又誠)하는 한결같은 신앙심을 마음에 새겨 우리 모두가 한울사람으로 거듭 태어나 교단의 신앙풍토가 새롭게 진작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춘암상사께서는 충청도 덕산 막동에서 탄생하시어 28세 되는 포덕 24년 3월에 입도 하셨습니다. 당시 우리 교단은 조선왕조의 탄압 속에서도 경전을 간행하여 배포하는 등 포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춘암상사는 입도하자마자 먼저 해월신사를 찾아 보았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의암성사와 상면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손천민·황하일·서인주·여규덕·윤상오 등 후일 교단을 이끌었던 많은 젊은 존재들이 해월신사를 찾아뵙자 신사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우리 도의 운이 방금 흥융(興隆)하는지라 제군은 성경신으로 포덕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포덕 25년 10월에 춘암상사는 해월신사의 지도로 의암성사와 함께 충청도 가섭사에서 49일 특별기도를 하였습니다.

특별기도 후 귀가하신 춘암상사는 어육주초(魚肉酒草)를 일절 금한 채 독공수련으로 일관하는 등, 춘암상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낮자루를 베개로 삼아 잠시 눈을 부칠 정도로 주문공부에 전념하는 한편 충청도 지역의 포덕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성으로 춘암상사는 10년 독공수련이 끝나던 포덕 34년에 충청도지역의 대접주가 되시어 이 해 3월 보은(報恩)에서의 척왜양운동 때는 덕의대접주(德義大接主)가 되시어 지도자로 당당하게 참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 동학혁명이 일어나 해월신사께서 9월 18일에 총기포령을 내리자 춘암상사는 충청도 일대에서 기포한 수만 명 동학군의 선봉장이 되어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반침략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포덕 38년 12월에 의암성사가 제3세 교조로 도통을 이어받으신 후 다음해 정초에 춘암상사는 의암성사와 함께 해월신사께 신년하례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때 해월신사께서 특별히 두 사람에게 겸상을 차려 주셨는데, 겸상을 받은 춘암상사는 이심전심으로 두 사람이 함께 교단을 잘 이끌어 가라는 해월신사의 뜻을 헤아리고 식사가 끝난 후 의관을 정제하고 의암성사에게 큰절을 하면서 앞으로는 스승님으로 모시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해월신사가 순도하신 후 춘암상사는 포덕 40년 4월에 의암성사로부터 ‘춘암(春菴)’이라는 도호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해 7월 풍기(豊基)에서 교단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암성사의 대종주의식(大宗主儀式)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춘암상사는 경도주(敬道主)의 대임(大任)을 맡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교단의 핵심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암성사의 일본 체류와 갑진개화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동학이 천도교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이용구와 김연국 등 교단의 고위직에 있던 여러 교직자들이 각자위심으로 배교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나 춘암상사는 의암성사의 뜻에 결코 어긋남이 없이 교문을 수호하는데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중앙총부가 설치되자 초창기에 춘암상사는 교장(敎長)·경도사(敬道師)·고문과장(顧問課長) 등 중요 직책을 맡아 의암성사를 보필하시다가 포덕 49년 1월 18일 제4세 대도주직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단이 3백만 대중단으로 발전하면서 포덕 60년에 3·1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자 의암성사는 춘암상사에게 유시문(諭示文)을 통해서 교단의 장래를 위해 증책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의암성사를 비롯한 민족대표 뿐만 아니라 춘암상사마저 체포하여 민족대표와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가두고 탄압 했습니다.

의암성사께서 옥고로 인해 포덕 63년에 순도 순국하시고, 뜻하지 않게 교단에 분규사태가 일어났지만 춘암상사는 무인멸애기도운동을 극비리에 추진하는 등 나라의 독립을 향한 불굴의 정신을 발휘하셨습니다.

포덕 81년 4월, 교단은 장기간에 걸친 친구파 분규를 마감하고 마침내 합동하게 되자 춘암상사는 “교회가 이제 합동이 된다니 내가 영계(靈界)에서 스승님을 뵈기가 땀땀하게 되었다”는 유언을 남기고 합동대회를 하루 앞둔 4월 3일에 향년 86세로 환원하셨습니다. 춘암상사는 환원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염주를 놓지 않고 주문 외우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춘암상사는 우리 교사에 있어 가장 귀감이 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춘암상사는 오랜 독공수련을 통해서 한울마음 그대로의 천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에 죽고 참에 사느니라”고 강조하시면서 “거짓말을 한 번 하면 10년 공부가 무효가 되며, 또 10년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일기념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춘암상사의 참 모습을 되새기고 상사님의 철두철미한 신앙심을 본받아 천도교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길이 바로 침체된 교단을 부흥시키는 첩경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은 금년 3월에 교령을 새로 선출하는 제40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침체된 교단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교단중흥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어 동귀일체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포덕 163년 새해를 맞아 모든 동덕과 도가에 한울님의 감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기념사에 대합니다.

포덕 163(2022)년 1월 18일

교령 송 범 두 심고

[사설]

교령의 자질

새로운 교령을 선출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교령은 최고의결기관인 대회에서 선출한다. 교령은 천도교를 대표하며 교회 전반을 통리한다. 이런 점에서 교령의 역할과 권한은 중앙총부에서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중무행정을 중무원장 중심제로 해야 한다고 강변해도 교헌에 충실할 것 같으면 중무원장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중무행정은 별로 없다. 중무원장마저도 교령의 절대적 지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교령의 개인 성향과 관계되겠지만, 교령이 되면 교령 또한 교회 전반을 통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교령의 덕망과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교헌과 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덕망과 자질이다. 좋은 교령이 선출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선거로 뽑는 교령이 모두의 입맛에 맞을 리는 없다. 단 지금의 교헌과 제도 아래서는 훌륭한 인품과 덕망, 그리고 자질을 갖춘 분을 교령으로 모시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지일 것이다.

교령은 진실한 천도교인으로써 일용행사에 있어서 천도교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귀일체와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

지금의 우리 교단은 각자위심과 분열의 현상을 노출하고 있다. 이는 스승님께서도 늘 염려하시고 경계하신 일이다. 옳고 그름은 상존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도덕률로 옳고 그름을 재단하려 한다. 그리고 그름에 대하여 지나치게 냉혹하다. 우리 사람이 가진 약점 중 하나는 자기 판단을 맹신하기 쉽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을 일단 비판하려 든다는 것이다. 타협이나 통합의 길을 선택하려 하지 않는다. 그 길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기술

을 필요로 하는 험난하고 피곤한 길이기 때문이다. 진리도 변하는 것이고 보면 자기 판단이 항상 옳다는 확신은 위험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령의 생각은 교회의 나아갈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교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중무행정이 방향을 잡는다. 왜냐하면 교령의 지시를 어기게 되면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령은 스승님과 같은 반열의 깨달은 자는 아니다. 단지 천도교 전반의 통리권자일 뿐이다. 교령이 만 교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 때문에 교령을 선거할 때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눈여겨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도덕적 힘겨울 남기지 않는가? 사익을 지나치게 추구하지는 않았는가? 천도교를 진실로 신봉하며 그 진리를 실천궁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동귀일체의 정신으로 교인들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지녔는가? 어떠한 난국도 거뜰히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졌는가? 천도교를 중흥할 수 있는 그릇인가?

현행 교헌으로는 대회에서 대의원들이 무입후보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교령을 선거한다. 이 방법은 전통처럼 지켜져 오고 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불합리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매우 의미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관건은 대의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접선거 방식이기 때문에 대의원 개인의 선택이 다수 교인의 선택을 대표한다. 대의원들은 평소 교인들과 소통하고 사람을 보는 혜안을 길러야 한다. 사사로이 관계나 이익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교령 선출은 자기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오만 년 천도교를 위한 중차대한 과업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를 교령으로 선택할 것인가. 한 치도 흔들림 없는 기준과 혜안으로 패착 없는 신의 한 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40주기 주옥경 종법사 추도식 거행



여성회본부(회장 박차귀)는 1월 17일(월) 오전 11시 우이동 주옥경 종법사 묘소에서 제 40주기 추도식을 봉행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되는 까닭에 이번 추도식은 참여자를 최소한의 인원수로 제한하였다.

주영선 총무부장의 집례로 진행된 추도식은 교회의식에 이어 박충남 의창수도원장의 종법사 약력소개, 박징재 부회장의 경전봉독(성령출세설), 박차귀 회장의 추모사, 민족대표 33인유족회 김재욱 회장의 추모사, 참례인의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

박차귀 여성회장은 추모사에서 “주옥경 사모님 40주기를 기해 담당하셨던 기개와 출

중하셨던 추진력을 이어 받아 교단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며 변화와 발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여성회중앙회본부 초대 회장이신 주옥경 종법사님의 위대한 선구자적 정신을 기리며 조촐하게 추모식을 봉행하고 이어 의암성사와 의암성사 동생 강암 손병흠 묘소도 참배하였다. 한편, 본부에서는 전국의 여성회원들에게 미리 공문을 발송하여 당일 11시에 마음을 모아 함께 추모식을 거행하도록 시행하였다. (글: 사진/ 신주민 여성회국장)

수의당(守義堂) 주옥경 종법사



포덕 35년(1894) 12월 평양 근처 속천에서 출생하여, 8세에 평양에서 기생학교 입학하여 각종 기예와 한문(漢文)을 수학하고 특히 서화(書畵)를 익힌 주옥경 종법사는 19세 되는 포덕 53년(1912)에 상경하여 명월관에 취업하였다. 당시 수의당의 예명(藝名)은 취미(翠眉)요, 기명(妓名)은 산월(山月)이었다. 상경 1년 후 무부기조합(無夫妓組合)을 창설한 수의당은 이를 후일 다동기생조합으로 확대 개편하여 제1대 향수(香首)가 되었다. 향수란 조합에

소속된 기생들의 수장(首長)을 말한다.

포덕 56년(1914)부터 의암성사와 가연을 맺었다. 3·1운동으로 서대문감옥에 수감된 의암성사의 옥바라지에 헌신하였고, 포덕 63년(1922) 5월 19일 의암성사와 사별하였다. 의암성사 환원 포덕 64년(1923) 9월에 천도교청년당이 창건되자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다음해 4월 5일 천일기념에 천도교 최초의 여성단체인 천도교내수단(天道教內修團)을 창단하여 초대 대표가 되었다. 포덕 68년(1927) 동경으로 유학하여 정칙학교 영문과를 마치고 귀국하여 천도교여성운동과 교단활동에 헌신하였다.

포덕 86년(1945) 8월 일제의 패망으로 조국이 해방되자 그 다음해 내성단의 뒤를 이어 내수회(內修會)로 명칭이 바뀐 여성조직의 대표가 되었고, 그 후 내수회가 부인회로, 다시 현재의 여성회로 명칭이 바뀌면서도 계속 대표직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포덕 100년(1959)에 사회적으로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회장 조동식)가 구성되자 가산을 정리하여 기념사업회에 기증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 의암성사의 묘소 수찬과 탐동공원에 의암성사 동상이 건립(1966년)되고 의암성사전기 간행이 이루어졌다. 포덕 103(1962)년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된 정부 주최 3·1절기념식에서 의암성사에게 추서하는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주옥경 종법사가 받았다.

포덕 98년(1957) 우이동 봉황각으로 이주하였고, 포덕100년(1959) 경운학원 원장에 취임하였다. 4·19혁명(1960년) 이후 민주·자주·평화를 통일 3원칙으로 내세운 통일운동단체인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 부의장을 맡기도 하였다. 민족대표33인유족회장 역임(1965), 광복회 부회장 역임(1967), 종법사추대(1971), 여성회장 은퇴(1971). 포덕 123년(1982) 1월 17일 만 87세로 환원, 우이동 의암성사 묘역에 유택이 마련되었다.

주옥경 종법사의 가장 커다란 업적의 하나인 민자통 활동을 정리한, ‘남북종교 교류 촉진 세미나’(2021.11.29.)에서 이시중(민화협 사무차장/ 통일인문학 박사)의 발표 글을 소개한다.

“그때만 해도 천도교세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동학이 천도교가 되었는데 그 천도교는 3·1운동 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4·19 후까지도 그 잔존세력이 역할을 했습니다. 손병희 선생의 미망인인 주옥경 여사가 민자통에 가담을 하고 또 천도교가 재정지원도 했습니다.”/민자통 결성 현장을 취재했던 남재희 기자(이후 노동부장관역임) 증언

천도교의 통일운동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천도교는 먼저 4·19혁명을 적극 지지하며 통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키자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통일방안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동학당’을 결성한다. 1960년 11월의 취지문에서 ‘동학당’은 민주적 경제와 도덕적 참여정치를 주장하며 남북총선거에 의한 통일론을 제시하여 남북한의 연방제나 중립화 대신 자주적인 통일과 외교노선을 주장했다.

1960년 10월에는 천도교의 박래원·박진 등이 참여하여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준비위원회”를 결성, 통일의 3대원칙인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즉각적인 남북정치협상을 요구하였다. 민자통은 1961년 2월 25일 천도교대강당에서 열린 결성대회에서 그 성격을 “자주적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하는 범국민운동체”임을 밝히고, ‘민족통일역량의 총집결’과 ‘통일유보 또는 선건설 후통일 분쇄’를 주장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성대회 당시 민자통에 참여한 정당과 사회단체는 21개로, ‘동학당 일부, 천도교일부, 천도교부녀회’ 세 단체가 들어있다.

결성대회를 개최할 무렵 민자통은 21개 정당·사회단체와 4만 명이 넘는 회원을 지닌, 순수 민간단체로서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대중조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민자통은 중앙협의회에 이어 서울시협의회와 경남·북, 전남·북, 충남 등 5개 도협의회와 17개 군협의회 등 지방협의회를 조직하였고 그 밖에 읍·면·동 협의회와 직장협의회, 재외동포 지부 결성을 준비하는 등 통일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민자통을 총괄한 사무총장은 천도교의 박진이였고, 천도교의 민자통 참여와 관련해서는 심산 김창숙과 주옥경 종법사를 연결한 박진과 박래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동학당과 민자통 참여라는 천도교의 통일운동은 5·16 군사 쿠데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동학당준비위원회는 국내외 정세보고를 꾸준히 발표하고 교양문집을 발행하는 등 동학이념을 통한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방략을 계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업적을 쌓아 가고 있었고, 민자통에서의 주도적 활동은 통일운동의 커다란 자양분이 되었다.

홍암 나인협 선생 흉상 제막식



홍암 나인협 선생 흉상 제막식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 부산시 남구 소재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광장(당곡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제막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에 이어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의 기념사, 박인준 중앙총부 중무원장의 축사, 홍암 선생의 증손자 나명재 동덕의 축사가 이어졌고, 박재호 국회의원은 축전을 보내왔다.

새롭게 조성된 흉상 옆면에는 나인협 선생의 생애가 기록되었고 건너편에는 임종시가 새겨졌다. 앞 머릿돌에는 홍암 선생과 부산 남구의 인연을 소개하고 있다. 부산 남

구는 세 동강나 파손되었던 나인협 선생의 묘 입구 표지석도 함께 복원했다. 이 표지석은 1973년 홍암 선생의 유해가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되고 대연동 범디산에 남아 있다가, 2016년 재개발 사업으로 파손되었고 이후 천도교 대동교구에서 보관해 왔다.

한편, 부산 남구는 지난해 여름 나인협 선생의 기념사업을 결정하고 지난 10월 홍암 선생 특별전시회를 남구청에서 개최하였고, 12월에는 7천 6백만 원의 사업비로 흉상 제막과 표지석을 복원하였다.

홍암 선생의 흉상 제막으로 부산 남구에는 새로운 문화재가 추가되었고, 천도교의 입장에서는 부산의 동학 천도교 유적이 매우 드문 가운데 새로운 유적지가 또 생겨 동학유적지 답사의 발걸음을 풍부하게 되었다. 기존의 부산 지역 동학 천도교 유적지는 대신동 시약산 산제당(대신사 여동생 관련), 영도 아씨당 당산제(영도구 신선동 산3-6, 대신사 조카 최씨와 하씨부인), 부산진성 금루관(부산 동구 자성로 99. 1893년 3월 6일 일본공사관 기록에 '척양 척왜' 깃발 달린 곳) 등이다. (탁암)

포덕 163년도 인내천 장학생 선발안내

천도교인이 천도교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임으로 시작한 '인내천 나눔'이 7년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인내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선발안내
 대상 : 교인으로서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 약간 명
 장학금 : 대학생 각 100만원, 고등학생 각 50만원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교구장 및 도정 추천서
 신청기간 : 포덕 163년 2월 10일까지
 문의 및 접수 : 신인간사, 인내천나눔 (총무 서중환 010-2713-3601)

포덕 162년도 인내천나눔 참가회원
 방태수(문화예술인) 이창건(강서) 이동훈(양주) 석현민(문화예술인) 최상은(영등포) 박정현(영등포) 정경숙(영등포) 서종환(영등포) 서해원(영등포) 서경원(영등포) 서민중(청원) 김성수(마산) 조용순(마산) 방임현(의정부) 성강현(동천) 주선원(한강) 라명제(송탄) 라일선(마포) 이흥자(마포) 김산(마포) 김순자(사천) 김춘옥(문화예술인) 김민경(부인) 김춘성(문화예술인) 박경희(대동) 구옥주(대동) 박종구(울산)
 대학생단후원회
 ※ 회원의 회비는 오직 장학금으로만 사용됩니다.
회비계좌 농협 352-0931-7940-23 방태수(인내천 나눔)

『인내천 나눔』 회장 방태수 십고

포덕 163년 어린이시일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관 : 낙안회 / 후원 : 천도교 중앙총부

일시 : 포덕 163년 1월~12월 둘째주 일요일
장소 : 온라인(신청자에게 ZOOM 링크를 공유)
내용 : 11시 어린이시일.
11시 30분 신나는 활동.(30~40분 소요)
신청 : 010-9275-8060
(문자로 소속교구, 이름, 학년, 우편물주소를 보내주세요)

| 도일 기념일성금 (163.1.18.) | | |
|----------------------|------|---------|
| 김산 | 마포 | 100,000 |
| 박인준 | 동천 | 100,000 |
| 길혜정 | 마포 | 50,000 |
| 김정호 | 마포 | 50,000 |
| 박병용 | 서부 | 50,000 |
| 배명숙 | 마포 | 50,000 |
| 성주현 | 관의 | 50,000 |
| 한광도 | 서울 | 50,000 |
| 도봉수유 | 도봉수유 | 30,000 |
| 박남준 | 동서울 | 30,000 |
| 박명옥 | 대전 | 30,000 |
| 심점례 | 도봉수유 | 30,000 |
| 전명운 | 시흥 | 30,000 |
| 김경규 | 서울 | 20,000 |
| 신의당 | 서울 | 20,000 |
| 임승자 | 수원 | 20,000 |
| 최홍룡 | 옥구 | 20,000 |
| 특별성금 | | |
| 한국종교협의회 | | 100,000 |
| 중앙도서관성금 | | |
| 김창석 | 마산 | 100,000 |

설 차례 어떻게 지내면 되나요

- 청수 한 그릇으로 지내는 향아설위의 차례



오는 2월 1일(월)은 설날입니다. 차례의 절차는 의례에 준하되, 약력 소개는 생략하는 것이 통례이며,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아침식사 전에 봉행합니다.

차례 상에는 청수 한 그릇을 올리고 향이나 초는 가정에 따라 선택해서서, 아래 식순에 따라 지내시면 됩니다.

차례 식순

1. 개식 2. 청수봉전 3. 심고 4. 주문3회 병송 5. 경전봉독(성령출세설) 6. 분향 7. 심고 9. 폐식

차례 때의 심고문(예문)

한울님과 스승님 조상님 감응하옵소서. 오늘 설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올리오니 감응하옵소서.

조상님들의 성령이시여! 항상 저희 후손들의 심령과 융합되시어 자유극락을 누리옵소서. 온 가족이 한울님과 스승님의 뜻을 받들고 화목하여 가중차제 우환 없이 1년 365일을 하루같이 지내게 하여 주시옵고 만사여의, 도성입덕, 도가완성, 교회 발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의 대원을 하루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의 소원)

청수 한 그릇과 향아설위(向我設位)

해월신사는 포덕 16년(1875) '앞으로 일체의 의식에 청수 한 그릇만 사용하는 날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실천한 시기는 포덕 25년(1884) 공주 가섭사 특별기도 때로 기록에 남아 있다. 이후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나던 해의 통유문(1892.2.26.)에서도 청수 한 그릇을 놓고 밤 9시에서 11시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해월신사는 포덕 38년(1897) 4월, 기존의 유교식 제사를 도인들 앞에서 폐지하고 향아설위법 제사상을 실행하셨는데, 그것이 지금의 천도교 제사상이다. 해월신사가 시행하신 지는 벌써 120여 년이 지났다.

이 청수일기 의례가 천도교 기념식에서 선을 보인 것이 언제일까? 포덕 47년(1906) 천일기념식이다. 포덕 49년(1908)부터 교인들의 차례·제사상에서 과일과 제수, 분향 등을 폐지하고 청수 한 그릇으로 대신할 것을 권고했다.

모든 제물을 청수 한 그릇으로 바꿔 놓은 출발점은, 해월신사 시절 가난한 교인들의 형편을 고려한 점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물질이 풍부해진 이 시점에서 보면, 현대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많은 제사 음식은, 음식물의 낭비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미 향아설위를 모르는 다른 종교도 합리적이지 못한 제사음식을 바꾸고 있다. 꽃이나, 모이는 사람의 기호에 맞춰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천도교의 청수일기 제례법은 우리 고유의 정서와 인내천의 이치를 담고 있다. 때문에 현재는 물론 우리 자손들이 주역이 될 미래에도 가장 바람직한 제례법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탁암)

〈환원 소식〉

도경교구(도원포) 영암 박영관 선도사님의 내수도 서삼순님께서 환원하셨습니다.

환원 : 포덕 163(2022)년 1월 19일

고인의 성령출세를 심고합니다.

〈칼럼〉

코로나시대의 차례상, 향아설위를 되새긴다

이우완_고현교구, 창원시의원



민족대동이 발생하던 설날이 다가오지만 이번 설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른 풍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쉽게 누그러지지 않는 전염병 확산세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풍경까지 삼켜버린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코로나 19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라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라면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동안 묵혀두었던 숙제를 조금씩 풀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객관적인 여건이 이전의 설날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 만큼 이번 기회를 차례상을 비롯한 명절 음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명절 풍경을 떠올려 보자. 평등한 명절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차례상 준비는 여성들이 도맡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에게 명절 연휴의 첫날은 차례상 준비로 고단한 날일 뿐이다. 차례상 준비가 끝나더라도 그다음은 끼니때마다 대가족의 밥상을 차려야 했으므로 부엌에서 나올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았다. 그렇게 고생해서 준비한 명절 음식은 명절 연휴가 끝날 때쯤이면 애물단지가 되곤 했다.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 중에는 현대인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설날은 차례상 앞에 모여 앉을 수 있는 일가친지도, 음식을 준비할 사람도, 음식을 먹어줄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차례상을 이전과 같이 갖추어 다 갖추어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간소하게 준비할 것인지를 두고 가족 구성원들이 의견이라도 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이참에 차례상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차례 음식과 끼니 음식을 따로 장만하지 않아도 되도록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은 어떨까?

해월신사 최시형은 유교적 전통관이 지금보다 더 견고했던 조선 후기에 이미 '향아설위(向我設位)'의 제사법을 제자들에게 설파했다. 향아설위는 제사 지낼 때 벽을 향하여 진설(陳設)하지 않고 '나'를 향해 진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교식 제사법은 벽을 향해 음식을 차리는 '향벽설위(向壁設位)'에 해당한다.

해월신사는 "나의 부모는 첫 조상으로부터 몇만 대에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요, 또 부모의 심령은 한울님으로부터 몇만 대를 이어 나에게 이른 것이니 부모가 죽은 뒤에도 혈기는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이요, 심령과 정신도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사를 받들고 위를 베푸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하는 것이 본위이니, 평상시에 식사하듯이 위를 베푸 뒤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심고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교훈과 남기신 사업의 뜻을 생각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향아설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제사의 본위는 자손을 위하는 것이므로 평상시 식사하듯 제사상을 차리되, 무엇보다도 부모의 유훈과 유지를 잊지 않고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해월신사의 가르침을 비대면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새겨 보자.

청년회, 163년 첫 온라인 정기 수련회 열려

- 매주첫시일저녁에 실시

천도교청년회(회장 이재선)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시일식이나 수련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청년시일을 정해 작년 3월부터는 매월 첫 주 시일 저녁 정기적으로 온라인 수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신앙심 회복과 천도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온라인 수련은 청년회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온라인 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참여 가능하고, 청년회 집행위원 중에 집례를 맡고 있다. 이번 1월 정기수련에는 이재선 청년회장이 수련 집례를 맡았다. 지난 수련부터 청년회원 외에도 일반 교인분들 중 원하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선 회장은 "비록 비대면 상황이지만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존에 있던 물리적 거리도 줄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수련 후 새해를 맞아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청년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매월 첫째 주 시일 온라인 수련을 진행할 계획이며, 참여도 더욱 이끌어내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글/청년회장 이재선)

여성회, 1월 1일부터 7일간 동계수련 실시

‘올바른 주문 수행으로 성품을 깨닫자’ 주제로 비대면으로



여성회본부(회장 박차귀)는 포덕163년 여성회 동계수련을 1월 1일부터 7일까지 ‘올바른 주문 수행으로 성품을 깨닫자’를 주제로 비대면 수련을 실시하였다. 올해도 여성회 동계수련은 전국의 여성회원 및 참여의사를 밝힌 교인들을 여성회 온라인 단체 수련방에 초대하여 수련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수련을 실시하였다.

250명이 넘는 동덕들이 여성회본부 교회부장의 집례로 새벽 기도식 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신사주문으로 인

사를 나누며 하루 일과를 열었다. 새벽 기도식과 6시까지의 수련, 오전 11시 강의 영상, 저녁 8시 수련 후 9시 기도식으로 기도식과 수련 그리고 저녁 기도식은 여성회 본부에서 진행하고 저녁 8시 수련은 중앙총부의 영상으로 함께 하였다.

강의 영상은 김혁태 선도사의 ‘시천주’ 설교, 윤석산 선도사의 ‘포덕문’에 대한 강의, 임형진 중학대학원장의 ‘동학과 후천개벽’, 라명재 원장의 ‘동학과 과학’으로 구성하

였다.

박차귀 회장은 폐강사에서 “불안한 시기에 정심수도(正心修道)하여 한울님 마음으로 정신을 개혁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기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이 시기를 이겨낼 힘을 키운 수련이었다”며 수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동덕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7일간의 수련에 이어, 여성회 5차 49일 수련이 계속되고 있다. (글:사진/여성회국장 신주민)

부산 천도교인들, 부산시 ‘5대 종단 신년간담회’ 참석

공동선언문 발표, 종단 간 상호존중과 화합약속



5

동하고 임인년 새해를 맞아 부산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희망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천도교·불교·원불교·기독교·천주교 5대 종단 대표와 지도자들이 참석해 부산발전을 위한 협력, 시민행복 기원, 종교 간 존중과 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박형준 시장과 5대 종단 대표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협력과 부산시와 5대 종단 간 상호 존중과 화합 등을 약속했다.

공동선언문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15분 생활권 도시 및 그린스마트 도시 조성 등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협력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와 존중 ▲부산의 미래와 공동번영을 위한 소통과 화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과거처럼 공연이나 합창은 진행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5대 종단 대표의 희망메시지 전달, 2022년 시정발전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과 협조사항 논의 등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글:사진/정외수)

부산시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1월 5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5대 종단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화합과 도약의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5대 종단과 함께 소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

신사 생가 복원, 동학정신을 계승하고 발전 선양기로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는 경북도청의 설립허가증, 법원의 법인등기와 세무서의 고유번호증을 차례로 교부받아, 지난해 12월 사단법인으로 힘찬 출범을 하였다.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최상락 이사장(용담수도원장)은 “해월 생가사업회의 뜻을 살리

며 더하여 동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선양하는 사업회로 더욱 정진해야 하겠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한편,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는 지난해 4월 10일 경주 용담교구에서 ‘해월최시형선생생가주변 동학공원추진사업회’(회장 김윤근) 총회에서 명칭 변경을 하였고, 해월생가복원과 동학도시공원화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밝혔고, 최상락 이사장을 선임하였다.(글:사진/최상락)

〈고침〉

제185호(162.12.23) 대동교구 건축경과에서 ‘동부산교구 구성 포는 순의포, 순원포, 남진포’로 정정합니다. [남정포를→남진포로 정정]

‘수운 옛길, 오늘을 걷다’

-경주 용담정에서 남원 은적암까지 순례



지난 1월 3일 경주 용담정을 출발하여 남원 은적암에 이르는 천 리 길을 순례하는 분들을 소개한다. 김석균(순례단장), 조기현, 최광식 등 순례자들은 1월 2일 용담수도원에 모여, 이튿날 9시 용담정에서 순례 출발 봉고식을 하고 남원 은적암으로 출발하였다.

수운대신사께서 용담정에서 은적암까지 가셨던 길을 ‘수운 옛길’이라 하고, 장장 450km, 천 리가 넘는 길을 도보로 걷기 시작한 것이다. 천도교창건사에는 대신사께서 포덕2년(1861) 늦가을 경주를 떠나 성주를 거쳐 무주, 남원까지 갔다고 했다. 성주에서 충무공 이순신 사당을 대신사께서 들렀다고 했으나 성주에는 그런 사당이 없다. 표영삼 등은 성주는 전남 승주의 잘못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에 ‘수운 옛길’을 경주, 울산, 부산, 진해, 고성, 진주, 하동, 순천, 구례, 남원에 이르는 길로 보고 걷고 있다. 1월 28일 은적암에서 순례를 마무리 한다. 순례 구간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탁암)

순례일정

1. 경주 용담정(1.3) 2. 울산 여시바윗골 3. 부산동학이야기 마당 4. 고성향교 5. 소곡객방 마을회관 6. 진주농민항쟁기념탑 7. 하동고성산 동학군위령탑 8. 농부네도서관 9. 광

양 와인동굴 10. 순천 송치마을 11. 구례구역 12. 호곡 나루터 13. 김주열 열사 묘지 14. 남원 은적암(1.28)

○ 출발 일시 : 2022년 1월 3일 9시 경주용담정

○ 순례구간 : 경주 용담정 ~ 남원 은적암(450km)

○ 전구간 참여 : 김석균(순례단장), 조기현, 최광식, 지리산상투

부분 참여 : 아시반, 녹두화, 최고원, 진우성, 조정래 등 (코로나로 참여인원 제한)

○ 소통창구 : 페이스북 ‘수운 옛길, 오늘을 걷다’

○ 걷는 시간 : 9:00~15:00

○ 순례 비용 : 자체 해결

○ 숙박 : 숙소와 야영(숙소와 식사 후원 받음)

○ 식사 : 식당, 자체 취사

○ 참여자 의무사항 : 걸음 후기 올리기(날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165-7906-73 한승명(‘수운옛길, 오늘을 걷다’ 재정담당)

종학대학원 운영위원회 개최

-163년 학사운영 등 논의



종학대학원(원장 임형진)은 1월 12일 오후 2시 줌(zoom) 비대면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임형진 원장을 비롯하여 김혁태, 석영기, 성주현, 전명운, 성강현, 김선배 운영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동계 단체수련, 금년도 학사일정 및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계 단체수련은 코로나로 인해 재가수련으로 하고 반드시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금년도 학사일정은 3월 5일부터 6월 11일(부산분원은 3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서울 본원은 <동경대전>(김혁태), <천도교통사>(성주현), <천도교와 근대>(주관 성주현) 등 3개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부산분원은 <용담유사>(송봉구), <동학혁명사>(성강현), <천도교와 근대>(서울 본원과 동일)를 각각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종학대학원 발전을 위해 후원금 모금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희암)

충남 시민단체 “충남도의회 2차 동학혁명 서훈 촉구결의안” 환영 회견



충남 동학단체협의회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는 지난해 12월 20일자 보도자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 촉구 충남도의회 결의안’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12월 16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이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반대하는 의원 하나 없이 의결함에 진심으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고 환영하였다.

이어 “이번에 내포 동학농민혁명의 본거지인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하였다.

박용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충남도의회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결의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내포동학농민혁명의 고장에서 서훈 촉구 결의안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이 결의안이 계기가 되어 전국의 시·도의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희암)

민족대표 이종훈 추모비 건립 추진위 구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자발적 모금운동 전개



이종훈 동상_경기광주 남한산성항일운동 기념탑

광주시 곤지암읍은 지난해 12월 30일 3·1운동 민족대표이며 독립운동가인 정암 이종훈 선생의 추모비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총 30인 이내로 관내 기관단체장 및 광주이씨 종친회 종원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으로 이창봉 중앙대 교수, 윤석산 한양대 교수, 김시형 동학역사문화선양회장, 오성덕 경기 3·1운동기념사업회장 4인이 포함됐다.

정암 이종훈 선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곤지암읍은 자발적인 참여 모금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읍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공 신익희 선생님과 정암 이종훈 선생님 같이 대한독립과 발전을 위해 애쓰신 광주시 출신 위인들을 재조명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호국 도시로서의 위상을 넓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암)

수유회관 입주를 환영합니다!

1. 임대층 : 1~15층 (9평~220평, 다층 계약 가능)
지하 전층(138평)
2. 임대 업종 : 사무실, 회의실, 전시실 등
3. 특징 : ① 지상주차장 (주차비용 별도 협의)
② 승강기 3대 운행
③ 교통 : 지하철 안국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주소 : (03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802호(수유회관)

문의전화 : 02-734-0773, 02-737-7665

이메일 : cdkujd2020@naver.com

천도교유지재단

